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운곡습지.

## “주민과 함께 운곡지역 브랜드 가치 높이자”

### 고창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역관리위 회의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군과 고창 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는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아산면 용계·독곡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마을)로 환경부가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습지 주변지역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습지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 운곡습지, 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 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람사르 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 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의 복원 및 관리방안, 관할 지역 내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센터 설립, 지역위원회 설립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7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김성규 기자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

##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 지역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회의(회장 김동식)는 지난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마을)로 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경부가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15.6.9, 우루과이)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 운곡습지, 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 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람사르 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 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의 복원 및 관리방안, 관할 지역 내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센터 설립, 지역위원회 설립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창=김준원기자



# 고창군 람사르 습지도시 도전

총 1억2500만원 투입 인증 후보지 선정위한 구슬땀... 내년 7월 환경부 최종발표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아산면 용계·독곡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마을)로 환경부가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해 채택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습지 주변지역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습지를 자원으로 활용해 주민 스스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운곡습지, 제주시 동백동산, 창녕

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 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람사르 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 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의 복원 및 관리방안, 관할 지역 내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 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센터 설립, 지역위원회 설립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7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노력

## 고창군, 지역관리위 회의... 6개 마을 지원사업 경과보고·추진 계획 논의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아산면 용계·독곡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마을)로 환경부가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15.6.9, 우루과이)에서 제안해 채택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습지 주변지역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습지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현명한 이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

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 운곡습지, 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 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람사르 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 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의 복원 및 관리방안, 관할 지역 내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 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센터 설립, 지역위원회 설립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7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 운곡습지, '람사르 인증' 총력

### 지역관리위원회 개최

### 성과보고·사업 계획 등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아산면 용계·독곡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지난 29일 열린 고창람사르습지도시 추진 지역관리위원회에서 참석들이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마을)로 환경부가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6월 9일, 우루과이)에서 제안해 채택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습지 주변지역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습지를 자산으로 활용해 주민 스스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

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 운곡습지, 제주도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 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7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동현 기자

## **전주일보**

2016년 03월 31일 목요일  
013면 함께하는세상(지역)

### **고창, 랍사르 습지 관리위 회의 습지도시 인증사업 경과보고**

고창군이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과 고창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는 지난 29일 아산면 용계 마을에서 새만금 지방 환경청 관계자와 군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그동안 군에서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랍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 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 운곡습지, 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 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내년 7월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김태완 기자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 노력”

고창, 지역관리위 회의... 경과 보고·사업 계획 등 논의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는 지난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아산면 용계·독곡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 고창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사업 추진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 News1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는 전날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운곡습지 주변 용계·독곡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 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마을)를 의미한다.



습지 주변지역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습지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 운곡습지, 제주 동백동산, 창녕 우포늪, 서귀포 물영아리 오름, 인제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습지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람사르 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 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의 복원 및 관리방안, 관할 지역 내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센터 설립, 지역위원회 설립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7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제철 기자(jcpark@)